

‘2007 한국불교박람회’ 성료

종단 홍보관 마련, 큰 호응 얻어



2007 한국불교박람회 개막식.



총지종 불교박람회 현장 홍보관.

‘2007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2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 천태종 교육부장 세운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

부장 호당정사,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송광사 울원장 지현 스님, 연예인 남일우 김용림 씨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홍과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를 빼놓고는 한국문화를 거론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도 김장실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

국불교의 유무형 콘텐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불교문화가 더욱 융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제이컨벤션 주

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교계 각 종단 홍보관과 사찰건축, 사찰음식, 불교 전통공예품, 다기, 불교문화용품 분야 등 모두 110개 단체, 300여 부스가

설치됐다.

불교총지종과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각 종단과 조계사, 봉은사, 관문사, 등 주요 사찰홍보관도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특히 총지종은 종단 전통 불자인 육자진인 본존과 양부 만다라 등을 봉안하고, 매일 오후 진호국가 불공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은 “국내 최대규모인 불교박람회에서 우리 종단의 특징을 널리 알렸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25일까지 나흘간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연등만들기 체험행사, 서각, 도예, 법패 시연,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조실) 법문, LMB싱어즈 음악공연, 세계선무도협회 서울지회 선무도 시연, 해동불교법음대학 법패 시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특별 이벤트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종단 화합 위해 한마음 낼 것”

서울 경인 승직자 - 신도회 간담회



3월 16일 열린 서울 경인 승인과 신정회간 간담회.

수성대종사 열반3주기 추선불사 봉행

엄격한 계행과 정진으로 종풍 진작

불교총지종 8대 종령 수성대종사 열반 3주기 추선불사가 3월 29일 대구 개천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해 전국의 스승과 교도, 유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개식사, 헌화 및 훈향정공, 유가 삼밀, 추복법문, 발원문,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된 추선불사에서 효강 종령은 “수성대종사님은 총지종 창종에 큰 기여를 하였고, 청정한 수행 정진으로 무릇 많은 중생들을 제도 해탈케 했으며,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북돋는 등 종단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셨다”고 추모했다.

효강 종령은 이와함께 “승단은 선배 스승님들께서 일구어 놓은 터전을 잘 가꾸어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수행에 철저해야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30년 경북 영일에서 출생한 수성 대종사는 총지종 창종 당시 대구 개천사, 제석사, 단음사 등 대구·경북지역 사원 개설불사에 진력하며 총지종 기반을 닦는데 큰 기여를 했다.

대구·경북 교구장, 중앙종회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제8대 종령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무행정을 관장하였으며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종풍을 진작시켰다.

수성 대종사는 생전에 종단의 화합과 종조 사상 정립, 철저한 계행, 수행정진을 통한 업장소멸 등을 강조한 바 있다.

3월 15일 서울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서울 경인 승직자와 신도회간 간담회 형식의 첫 모임이 열렸다. 서울 경인 신도회 주관으로 점심공양과 함께 있었던 이번 모임은 종단과 교도 상호 화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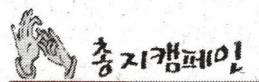
도모하고 아울러 종단 발전 방안과 관련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서 효강 종령은 스타 니파타의 경구를 인용해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을 떠난 이는 어디에도 집착치 않고 올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이일 것”이라며 “종단 승직과 교도가 부처님의 원용화합 정신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간다면 종단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숙 서울 경인 지회장은 “종령님과 원장님 이하 종단 스승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교세 확장을 위한 포교 활성화와 현실에 맞는 불공법, 사찰 환경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승 통리원장은 “우선 집행부 차원에서 교세 활성화 연구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수립되면 시일을 정해 다시 모임을 갖자”고 화답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 경인 지구 스승과 신정회 임원, 교도 대부분이 참석해 질타없이 다양한 내용으로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학교폭력과 좋은 벗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한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 염려되는 요즘이다. 해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대구 구암 여자 정보고등학교가 지난 해 학교폭력, 흡연, 금품갈취 등 청소년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천사(1004) 도우미 제도’가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천사 도우미란 나쁜 행동을 하는 다른 학생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도우미라는 뜻에서 고안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학생 비행신고 체제로 지난 해 처음 도입됐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지도부장이 현장으로 가서 학생들을 상담실로 불러들여 자술서를 쓰게 한 뒤 정도에 따라 상담과 훈계, 심각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내리게 된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천사 도우미에 청소년 비행 신고가 100여건 이상 접수됐고, 이중 10여명의 학생은 정도가 심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제도를 처음 도입한 학기 초에는 천사 도우미에게, SMS 신고가 폭주할 정도였고 학생들이 점차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같은 달 중순에는 학원폭력이 거짓말처럼 근절되었다 한다. 천사 도우미 제도는 청소년 비행 통제가 어려운 요즘 현실에 맞는 근절대책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땅이나 산과 같은 벗은 좋은 친구이고, 꽃이나 저울 같은 벗은 나쁜 친구라고 하였다. 땅 같고 산 같은 벗이란 바로 대지가 온갖 곡식과 열매를 기르듯 항상 도움이 되는 일을 권장하는 친구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변함없는 벗을 말한다.

또한, 꽃 같고 저울 같은 벗이란 바로 꽃이 피었다가는 쉬 지듯이, 저울이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듯이 부귀나 권세가 있을 때에는 가깝게 사귀다가도 가난하고 비천해지면 금방 돌아서는 친구를 말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달의 종조법설

안인바리밀(安忍波羅蜜)

만약 사람이 욕하면 메아리라 관할지며 타박하면 이 몸은 곧 경상갈다 관할지며 진에서는 이 마음이 환화갈다 관할지며 분노하게 보일 때는 이 마음의 체와 성은 흰동함이 없으리라 이와같이 관할지라

제69회 춘계강공회

금강같은 정진, 교화 혁신과 종단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정립한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으로 새로운 교화의 장을 마련한 총지종! 종단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6년 4월 16일(월)~4월 19일(목)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원 승



사 설

가족을 제도합시다

가족은 불법에서 나와 지중한 인연공덕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며, 바른 삶을 지명하는 지렛대 역할을 함과 동시에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운명공동체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오해와 집착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와 관계의 약화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지중한 인연 공덕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삼에 사로잡혀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자애로운 마음과 고난을 구제하는 자비를 바탕으로 피와 살을 나누며 형성된 생명공동체이기에 그 역할과 원만한 관계형성은 심각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현대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 천주교, 등 여러 종류의 신종교들이 산재해 있는 다종교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신앙형태에 따라 가족간에도 다양한 신앙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믿음을 신앙하고 있는 가족은 동일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에 비해 내재적 신앙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을 이룰 수 없으며, 상호 불편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장례의식시 가족간 신앙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나타나곤 한다. 일례로 가족 중 조부나 조모가 상(喪)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각자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을 경우, 엄숙하고 신성해야 할 장례식장에서는 각 종교마다 차별화된 제례의식으로 형제들간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불교는 신도가 노력하됨에 따라 가족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회의 사상과 업의 근본교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불교의 경우 고인의 극락왕생을 위한 영가 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구의 과학적, 현실적사상인 기독교는 영가에 대한 불교의 근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가족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적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확고한 믿음을 통해 모든 자녀들이 불교를 신앙할 수 있도록 발원하고 법회에 동참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불교의 저변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원인 중의 하나는 불교를 자신의 업장에 대한 참회와 '참 나'를 찾는 수행이 아닌 복을 비는 기복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기복적인 요소로 인해 자녀들의 모든 업장을 '나' 혼자서 감당하려 한다. 업장은 본인 당사자가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할 때 풀리 소멸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바른 마음과 불성을 깨치기 위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

불교의 교리는 인간의 소의현상과 물질만능이 팽배한 현실사회에서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며 진리이다. 이러한 진리를 모든 가족들이 공유할 때 화합된 가족,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인간미가 넘치는 자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통리원, 유지재단 전년도 결산 감사

“중무행정 투명성, 합리성 제고”



◇총지중이 결산감사 전 법무 정사에게 사무위원임명장을 수여했다.

총지중 사무위원(원장 지성)은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동안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기35년(2006년)도 정기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기35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속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의 적정성,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 및 인재양성 계획, 승진자와 중무원의 복지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평가 등 중무

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무위원장 지성 정사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자료정리 및 예산집행면에서 향상되었다”며 “이번 감사는 중무행정 활성화, 교세확장 방안과 각 부서별 활동 평가 등을 중심으로 중무행정을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총지중 총립 부산 동해중학교가 2007년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올해 입학생은 총 234명이다.

지성 정사는 또 이번 감사는 “중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의 유효성을 감사하는 것을 통

포항 수인사 사원신축 마무리 불사 박차

연건평 380평 3층 전통한옥양식

포항 수인사가 올 4월말 신축 불사 회장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공을 앞둔 수인사는 연건평 380평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전

통 한옥식으로 앞으로 경북지역의 수행과 문화, 복지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현과 밀법 포교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지중 전담건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 제석사에서 전담건설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수인사 신축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설계를 확정할 바 있다.

수인사는 총기 원년 신관동 소재 3층 빌딩 중 2층을 임대하여 포항선교부부 개설하고 총기 3년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매수하여 수인사 사찰로 사용해 왔다.

수인사는 전 종령이신 특정 대종사, 복지와 전수가 교화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교도들의 신생활 등이 활발한 사원이기도 하다.

수인사 신축 설계는 부산 덕화사를 설계한 '경주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하였다.

경주 건축사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부산 덕화사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인사도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다”며, “스승님과 교도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교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가 160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밀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밀교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들도 있다.

불교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밀교라고 하면 미신 혹은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지어는 불교를 전공한 일부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차원 높은 밀교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잘못된 불교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밀교는 오해되고 또한 폄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 의식의 대부분이 밀교의 의식이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가승들조차도 밀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밀교가 통불교 속에 흡수되면서 정통밀교가 계승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밀교는 교리와 수행체계가 심오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세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밀교는 결코 불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법신불 비로자나불과 일체되는 가르침

대승불교 최종 단계의 새로운 형태의 불교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서 불교의 교화와 실천체계를 종합하여 진리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밀교는 비밀불교(秘密佛敎)의 약칭으로서 일상을 초월한 신비적인 종교체험을 중시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의 교설(敎說)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것으로 그

경지에 도달한 자 이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秘密」이라고 한다. 밀교에서는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깨달음으로서의 법신불인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세계가

현현한 것으로 본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곧 우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한 온 우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른다. 그래서 그 비밀을 찾음으로써 곧바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 밀교의 가르침이다.

현교(顯敎)는 널리 대중에게 열려져 있으며 성불 내지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을 드러난 언설로써 나타내 보이는 가르침이다. 여기에 반하여 밀교는 신비성(神秘性)·상징성(象徵性)·의례성(儀禮性)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신밀(身密)·구밀(口密)·의밀(意密)의 삼밀관행(三密觀行)을 통하여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부처님의 비밀의 세계를 직접 체득(體得)함으로써 즉신성불(即身成佛)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밀교는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통찰하여 진리와 합일하려는 불교의 궁극이며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전신(全身)으로써 체험하려는 실천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밀교는 교학적으로도 반야(般若)에서 중관(中觀)·유식(唯識)·여래장(如來藏) 사상 등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종합했으며 아울러 정밀한 실천수행(實踐修行)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으로 일컬어진다. - 화령 정사(중앙교육원장)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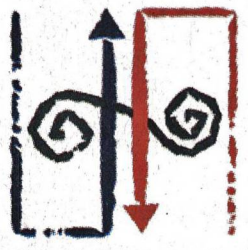
2007년 2월 28일부터 2007년 3월 27일까지

Table with 4 columns of names and donation amounts. Includes names like 정관남, 이회권, 이한혁, 박상순, 무명씨, 김수양, 이은, 황성녀, 이혜원, 자선화, 수중원, 상지화, 불명심, 법장화, 대자행, 대관, 유가혜, 안성, 박호열, 박주열, 행원심, 이재은, 공철봉, 김상열, 최옥순, 지성, 정덕순, 승효제, 배정임, 정정희, 이혜성, 이재호, 이연수, 신동희, 신동의, 신대식, 서상교, 이갑진, 사홍화, 법우, 박인철, 박인철, 박인국, 박인국, 박삼순, 류승태, 원만원, 시정, 김정숙, 이희숙, 원당, 오미숙, 묘십해, 안법계, 원송, 김주희, 정복지, 이순복, 심지장, 대덕, 김춘자, 한애숙, 김봉기, 이순욱, 송희준, 조원호, 정경자, 이화수, 박보경, 김성숙, 황영숙, 조현필, 조현필, 이란이, 윤선자, 변순개, 박영숙, 박수빈, 구정희, 공진아, 오윤보, 박옥란, 연등원, 지인사, 무명씨, 유광자, 김은숙, 이인성, 지정, 혜원정, 해보심, 오혜민, 서령, 이용자, 박지홍, 박지웅, 박상윤, 강순란, 강한빛, 정희연, 실지사 정우석, 정정함, 연등원.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돌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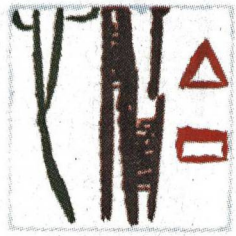
부자되는 법



어느 샐러리맨의 아내가 통장에 돈 모일 새가 없다며 불평하자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통장에 한 오여즘 들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겠지?"

아내는 순간, '오역'이라는 말에 도취되어 열린 동의했습니다. "그야 그렇죠?" 남편이 이번에는 장난꾸러기처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통장에는 몇 십만 원 밖에 들어 있지 않지만, 한 오여즘 들어있는데도 안 쓰는 셈 치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겠지?"

- 강호형 / 수필가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키기도 힘들지만 억제하기 또한 힘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 곧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안다는 말일 것입니다.

- 김영희 / 시인

마음을 바꾸면



그런데 어느날 문득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터운 내 업장業障障, 그 업장을 소멸할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 여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머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핍니다. 오늘도 차도가 없었구나 생각하니 살아가는 나날이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터운 내 업장業障障, 그 업장을 소멸할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 여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 강현미 / 시인

마음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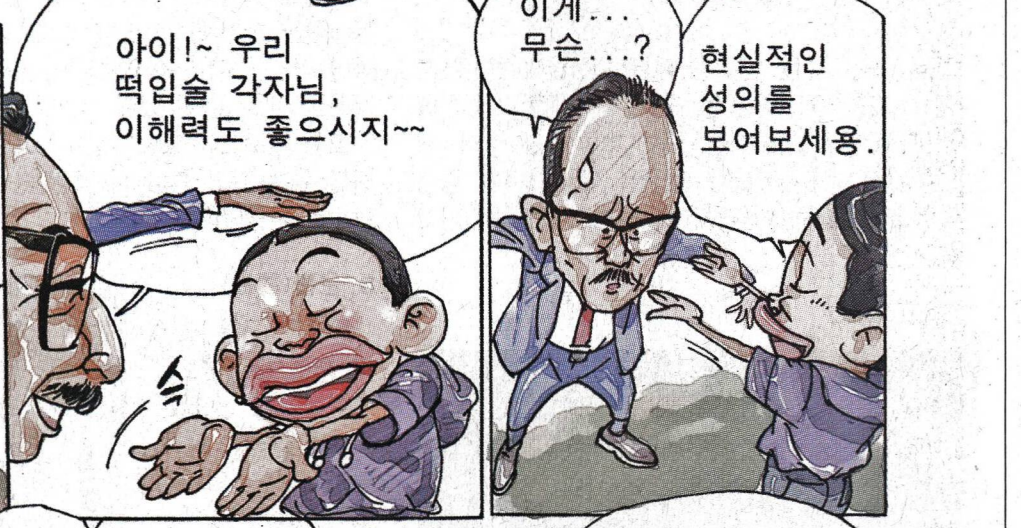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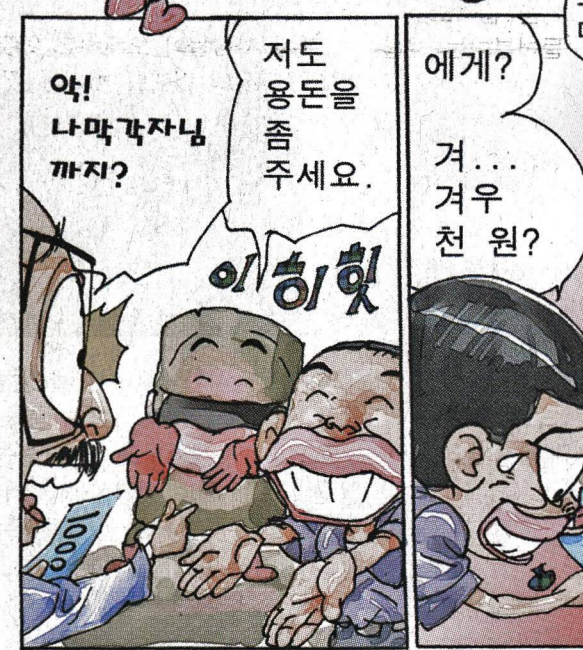
어떤 일에 힘든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먹는 그 '마음먹기'에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천수경편 제 14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마을 입구의 오래 된 무덤가에 소복히 핀 할미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랫녘 보다 보름은 더 늦게 봄이 찾아오는 이 산중에서 꽃을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생의 할미꽃이 이렇게 많이 군락지어 있는 것을 보기는 퍼드물기 때문입니다. 할미꽃은 저물어가는 3월의 햇살 속에서 그 부드러운 백발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꽃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꽃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퍼 오랜만인 듯합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길을 통해 마음이 찰찰 찰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열림 속에서 저는 100년 전 이 언덕에 묻혔던 묘지의 주인공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할미꽃의 꽃말은 <슬픈 추억>입니다. 이 꽃말처럼 묘지의 주인공은 자신의 슬픈 추억을 어둠 깊은 곳에서 깊어 울려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고 그 깊숙한 슬픔을 들여다 보느라 허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라고, 혼자 맘으로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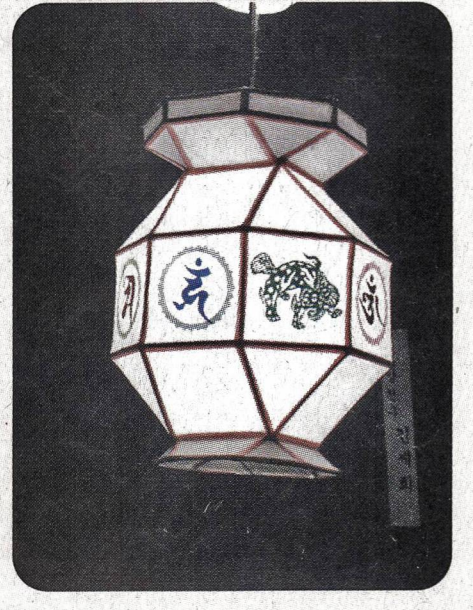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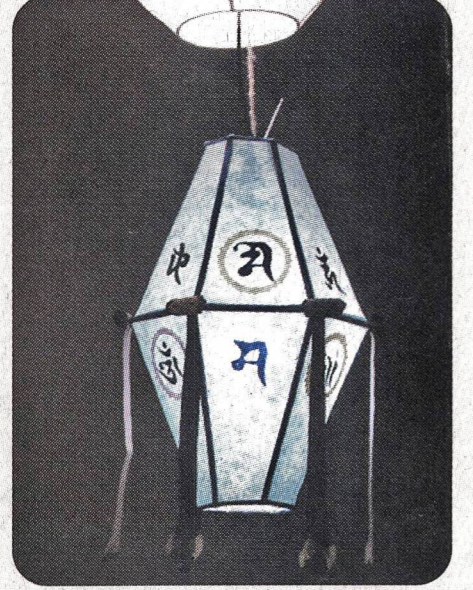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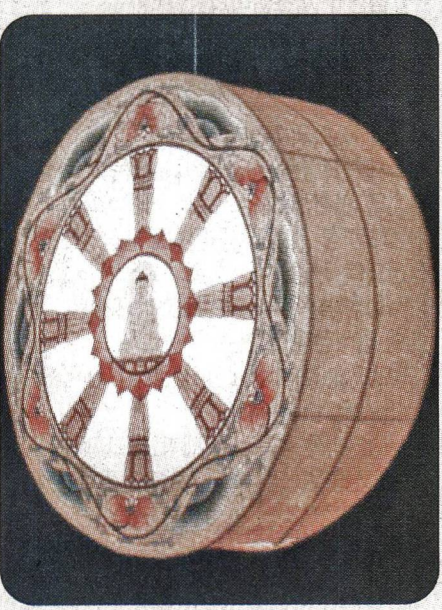
-초록공명, 산막일지 중에서

연등 공모전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에 사용할 총지종의 특색있는 연등 제작을 위해 총지종 교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종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통양식의 참신한 연등을 디자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작에 대해 소정의 공모료를 드리겠습니다.

- 대상 : 0명
- 금상 : 0명
- 은상 : 0명
- 동상 : 0명
- 접수 마감 : 총기36년(불기2551년) 4월 30일

보내주실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번지 불교총지종 통리원
연락처 : 02-552-1080~3



인국불교미술 ⑨

사원의 일상용품 - 불교공예

불교에서 불상, 불화, 건축을 뺀 나머지를 통틀어 불교공예라 하는데, 그 종류는 의식에 쓰이는 법구에서 사원생활에 쓰이는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불교공예품들은 쓰임새에 따라 크게 의식법구(儀式法具), 공양구(供養具), 장엄구(莊嚴具)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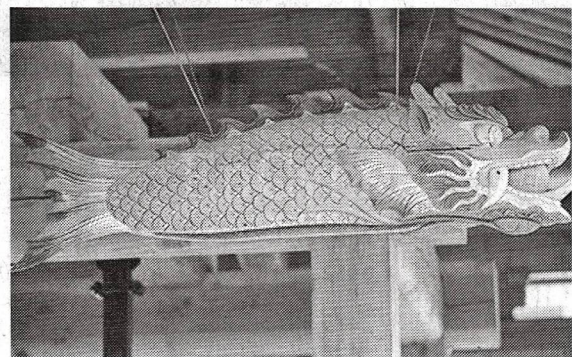
첫째, 의식의 장엄한 분위기를 살리는 의식법구에는 범종, 북, 목어, 운판, 경, 발, 목탁, 금강저, 금강령, 석장, 식복(金鼓, 飯子), 염주, 불자, 법리(法螺) 같은 법구가 있다.

둘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공양구에는 향로, 꽃병, 바루, 다기, 물병, 등, 시리기 등이 있다.

셋째 절의 불교적인 장엄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장엄구로는 번, 불단, 덧집, 기와 같은 것이 있다.

의 상당과 소침, 보설, 입실 등의 법요의식에 사용하는데, 보통 아침, 저녁 예불 때와 법요식을 거행할 때에 법고를 친다.

2. 목어(木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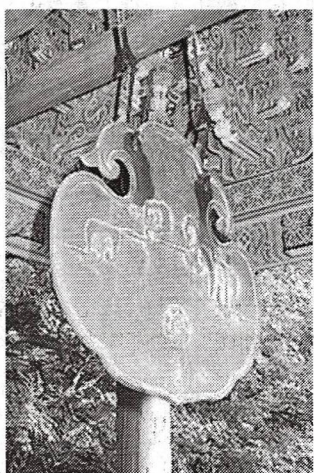
목어는 인도에서 유행된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의 선종사찰에서 쓰였던 것으로,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속을 파내어 두드리면 소리가 나도록 만든다. 대개 아침, 저녁 예불 때 치는 법구로 물 속 생물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백장청규에 보면 '목어는 재족 때는 길게 두 번 치고 스님들을 모이게 할 때에는 길게 한번 치며, 행자들을 모이게 할 때는 두 번 친다'고 적혀 있어 목어 역시 종이나 북처럼 의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고기가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수행자도 졸지 말고 항상 정진하라는 뜻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3. 운판(雲板)

운판은 구름 모양의 청동으로 주조한 조형물인데, 소리로써 날짐승을 교화,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선종사찰에서는 재당이나 부엌에 매달고 대중에게 끼니 때를 알릴 때 사용되기도 한다.



4. 죽비

'죽비자'라고도 한다. 좌선을 할 때 경계를 주거나 설법할 때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형태는 2개의 대쪽을 합친 다음 등나무로 머리부분과 손잡이를 감싸 옷칠을 한 후 한쪽 끝에 술을 붙인 것으로 그 길이는 일정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불사(佛事) 때 이것으로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어 대중의 좌(坐)·입(立)을 알린다.

5. 목탁(木탁)

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보통 통나무로 만

든다. 아침, 저녁 예불뿐 아니라 의식에서 대중들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단한 법구이다.

6. 금강령(金剛鈴)

금강저와 함께 밀교의식에 쓰인 법구로, 요령의 손잡이 끝이 금강저의 끝과 같은 모양이다. 이것도 동으로 만드는데, 고려 때에는 몸체에 팔부중이나 사천왕과 같은 신장을 새기거나 꽃 무늬 등을 새기고 손잡이에도 화려한 무늬를 새겨 넣어 아름답게 표현했다. 끝이 뾰족한 것 외에도 귀면을 새기는 등 다양한 모양의 금강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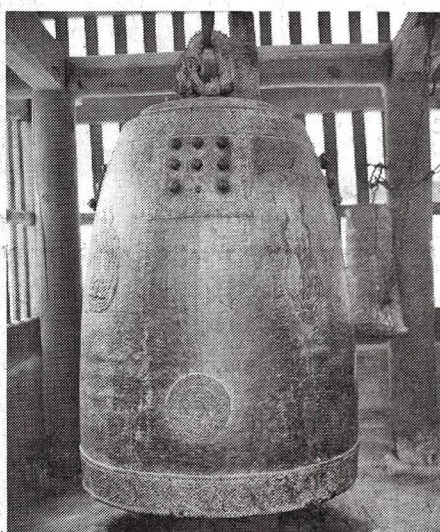
7. 염주(念珠)

염주는 수주(數珠), 송주(誦珠) 또는 주주(呪珠) 등으로도 불리는데, 원래 인도에서부터 쓰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염불에 전심하는 종파가 성립된 후 염불의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염불이 크게 유행하자 매우 애용되어 스님뿐 아니라 재가 신자들까지 몸에 필수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애용물이 되었다.

8. 금강저(金剛杵)

원래 인도에서 사용되던 무기였으나 부처님을 수호하는 금강역사가 이것을 들고 있어, 사천왕, 팔부중 등의 불교호법신들이 이 무기를 지니게 된다. 금강저는 모든 마군을 없애주는 법구로 인식되며, 특히 밀교의식에서 많이 애용된다.

9. 범종(梵鐘)



범종이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릴때나 사람들을 모으고 의식을 행할때 쓰이는 종을 말한다. 그 소리가 장엄하고 맑아 듣는이의 마음을 겸허히 참회토록 하며 신앙심을 불러 일으킨다. 불교에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 구제할수 있다고 믿어 일찍부터 중요하게 사용된 의식법구 중 하나이다.

진리의 여울

◇ 평안한 사람

"어떻게 보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타마님,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성인은 화내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으며, 후회 하지 않고 주문을 외거나 허둥거리지 않으며 말을 삼간다.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울적해 하지도 않는다.

감관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견해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탐욕에 멀리 떠나 거짓 없고 욕심내지 않으며, 인색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으며 두말(양설)을 하지 않는다. 유쾌한 일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며 잘못 믿는 일도 없고 버릴 욕심도 없다. 이익을 바라고 배우지 않는다.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어떻게 보고 지키는 사람이 평안한가

애착 때문에 남을 거역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않으며, 항상 평온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자기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뛰어나다고도 못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번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결핍없는 사람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애착도 생존을 끊어 없애려는 욕망도 없다. 모든 욕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얽매임의 매듭이 없고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넘었다. 그에게는 자식도 가족도 논밭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 범부와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비난하여 탐욕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욕심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힐난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스러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을 두지 않으므로 망상 분별에 따르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또 없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어떤 사물에도 이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경집)

(※충지 동의보감은 필자의 사정으로 한 회 쉽니다.)

죽비소리

주해(酒害)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은 실망을 많이 일으키고

정의(正義)를 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세간과 출세간의 의의를 또한 잃어버린다.

-보살행변화경(菩薩行變化經)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지상설법

사후천도(死後遷度)와 49재의 의미



법공 (정각사 주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이 이생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이 끝난다 해도 그 삶은 내세의 삶으로 다시 이어지고 또 내세의 삶도 끝이내면 또다시 그 다음의 내세로 이어져 결모습만 바뀌는 탈바꿈의 연속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그보다 더 못한 아귀, 지옥 등 악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몸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영혼으로 구원을 헤매야 하는 것이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사후세계와 천도에 대해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생의 삶을 다해 죽게 되면 영혼은 육신을 떠나 중음(中陰)의 세계에 들어 일정한 기간을 머물면서 자신이 생전에 지어놓은 업을 따라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이 몸을-현음(現陰)이라 하고, 미래에 새로 받을 몸을 후음(後陰)이라 하고 현음(現陰)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르는 중간영체(中間靈體)를 중음(中陰) 또는 중음신(中陰身)이라 한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 대개 일곱(7)단계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날부터 매(每)7일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정신기운이 깨어나는데 이렇게 하기를 7번 거듭하여 49일만이면 대개가 후음(後陰-다음생의 몸)을 받는데, 처음에는 생전의 업력(業力)이 착각을 일으켜 다음생의 몸을 받게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몸을 받지 않는 상태로 대개 49일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생전에 지은업과 인연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내세(來世)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命)이 다해 영혼이 육과 분리(分離)되는 것도 영혼에 따라 숨을 거두는 순간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도 하고 숨이 아직 끊기지 않았는데도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남도 어떤 영혼은 육신을 떠나 곧바로 다른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초7일 혹은 2/7일만에 태어나는 이도 있고 49일을 다 채우거나 혹은 몇 달 몇 해를 중음의 세계에 머물거나 더러는 수십 수백 년을 새 몸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헤매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7일에 한 번씩 일곱 번 재를 지내 영혼으로 하여금 새로이 맞게 될 내세의 길을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삼보의 법은(法尊)과 자손들의 정성어린 추복(追福)불공공덕으로 영혼위 업을 덜어주고 영로(靈路-영식이 가는 길)를 밝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재(齋)를 통해 영식(靈識)을 위한 영송(念誦)과 회사(喜捨), 기도과 독경, 천도법문과 설법, 이 모든 것은 떠나가는 영식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병들거나 탈진한 육신이 영양식을 받아 먹고 서서히 기운이 충족되듯, 중음의 영식 또한 법공양(法供養)을 받아 영력(靈力)이 점점 업장을 녹이고 거듭 녹여 마침내 청정한 업장으로 정화(淨化)되어 선도(善導-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齋) 불공이 영식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해드리는 것은 미혹의 때를 씻어드리고 무명의 업장을 벗겨 드려서 지혜롭고 밝은 영성(靈性)으로 바르게 내세의 길을 선택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어둠속에서는 가야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듯 미혹과 무명의 상태에서는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못하여 스스로 지은 바 업력(業力)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악도(惡道)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어둠속에서 빛이 되어 방향감각을 되찾아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영식(靈識)으로 하여금 청정일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남은 유족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마땅히 청정일념을 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곧 가신 분을 위한 최상의 보은(報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 영식(靈識)에게 남은 애착심(愛着心)을 씻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식은 육신을 떠나면 가장 먼저 생전에 익힌 애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따라서 그 익힌 업력에 끌려 다음 몸을 받아나서 한

몸을 받을 기회가 쉽지 않으므로 그 후회 한탄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 영식(靈識)으로 하여금 선도(善導-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선도인연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인연이란 어떤 인연이든 간에 만나지 않을 수 없는데 잘 만나면 행복한 것이고, 잘못 만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시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가족이 불법(佛法)을 믿어 천도재를 정성껏 잘 지내주면 가신 분의 내세의 길이 밝아질 수 있지만 시신(屍身)을 장례 지내는 것으로 자손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인연이라면 실사 생시에는 좋은 인연이었다 할지라도 죽은 뒤의 인연은 없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영혼이 천도재를 지내준다고 해서 많은 죄업이 다 소멸되고 반드시 선도에 태어나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식이 선도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도 크다 하지만 그보다도 영식(靈識)이 선도의 세계에 날 인연을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불안과 배고픔을 항상 겪으며 강자에 후사당하며, 고통을 끝없이 겪으며 (축생도-畜生道)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온갖 더러운 오물을 먹어야 하며 (아귀도-餓鬼道) 뜨거운 불 속에 수없이 몸을 태우고 못 뱀들이 우글거리는 속에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지옥도-地獄道) 등으로 비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비유는 단순한 비유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토록 두려운 악도의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천도재의 위력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천도재의 공덕을 깊이 믿고 정성을 다해 천도재를 드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넷째 - 영식(靈識)을 위해 회사(喜捨)와 불공(佛供)으로 죽은 이의 명복(冥福)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식의 앞길에 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불법의 세계는 자업자득(自業自得)과 인과응보(因果應報) 법칙으로 즉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지은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을 위해 영식의 이름으로 재물을 회사하고 삼보에 공양하고 특별한 사명을 해 드리는 것은 모두 영식의 앞길에 큰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두 가지란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혜만 있고 복이 없어도 안되고 복만 많고 지혜가 없어도 안될 일입니다.

영식을 위하여 회사로 복을 지어줘야 한다고 하면 -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가 영식을 미끼로 금전을 취한다고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 - 그러나 이는 성인이 진리를 깨쳐 영혼과 진리세계의 실상을 전달하고 실천하여 영식이 갈 영로를 밝혀 드리고자 함이지 절집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저속한 취리(取利)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간(善惡間)에 지은대로 받는 것이 진리세계의 엄연한 법도이기에 지어놓은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추복(追福)은 마치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당장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도재의 의의와 영식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생각하여 앞으로 49재에 더욱 정성을 다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마디 더 첨언한다면 49재로 영식이 천도되었다 하더라도 가끔씩 백일재(百日齋)까지 모셔서 더욱더 영식에게 음식이 쌓이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전 헌공도 명을 마친 직후가 영식에게는 가장 불안 시기이며 무거운 업보 쪽으로 떨어지기 쉬운 때이므로 가끔씩 열반 직후에 최선을 다해 큰 복을 지어 복력으로 밀어줘야 선도 수행에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천도재는 어둠속에서 빛으로 인도,

망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 가게 하는 의식”

첫째- 영식으로 하여금 청정일념(淸淨一念)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며 어리석고 성내며 탐내는 마음 때문에 애증(愛憎-사랑하고 미워함)을 떠나서 살아가기 어려우며, 한평생을 두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업(業)을 많이 가꾸어 애증에 끌려 청정하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는 청정한 한 생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세의 길은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청정한 한 생각을 갖는 것은 죽어 저승에 가는 영식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보내는 유족도 가신 분이 청정일념에 머물 수 있도록 애뜻한 정을 일단 끊고 불공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식이 청정한 마음에 머물게 되면 생사의 길에 구애받지 않게 되며 오고감에 미혹(迷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천도재를

없는 세상에 깊이 운회의 길을 틀게 됨으로 운회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오직 생전에 익힌 애착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애착심이란 마음이 무엇인가에 묶여있거나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함을 말합니다. 예컨대 마음이 재물에 묶여 재물을 떠나지 못하면 명예의 애착심에 걸려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처자 권속에 걸려 처자와 권속을 떠나지 못하면 처자권속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애착심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애착심의 그물에 걸리기 쉬운데 애착심(愛着心)이 자리잡게 되면 영식이 애착심의 대상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가 그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악도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착심을 녹여 주거나 덜어주기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주는 것입니다.

애착심은 그 기운이 맑지 못하고 탁해서 형상없는 영혼이지만 영혼도 무게가 있어 높이 뜨지 못하여 시야의 영역이 좁아져 아무렇게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번 몸을 잘못 받게 되면 다시 새

선도(善導)에 인연만 깊어지게 되면 때의 조만(早晚)은 있을 지라도 선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좋은 인연이 없으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자신의 능력 가운데 세가지 능(能)치 못한 것 가운데 하나를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천도재는 물론 앞으로의 천도재가 영식의 선도수생(善導受生)의 인연을 깊게 하는 중요한 의식임을 깊게 믿고 더욱 정성스럽게 천도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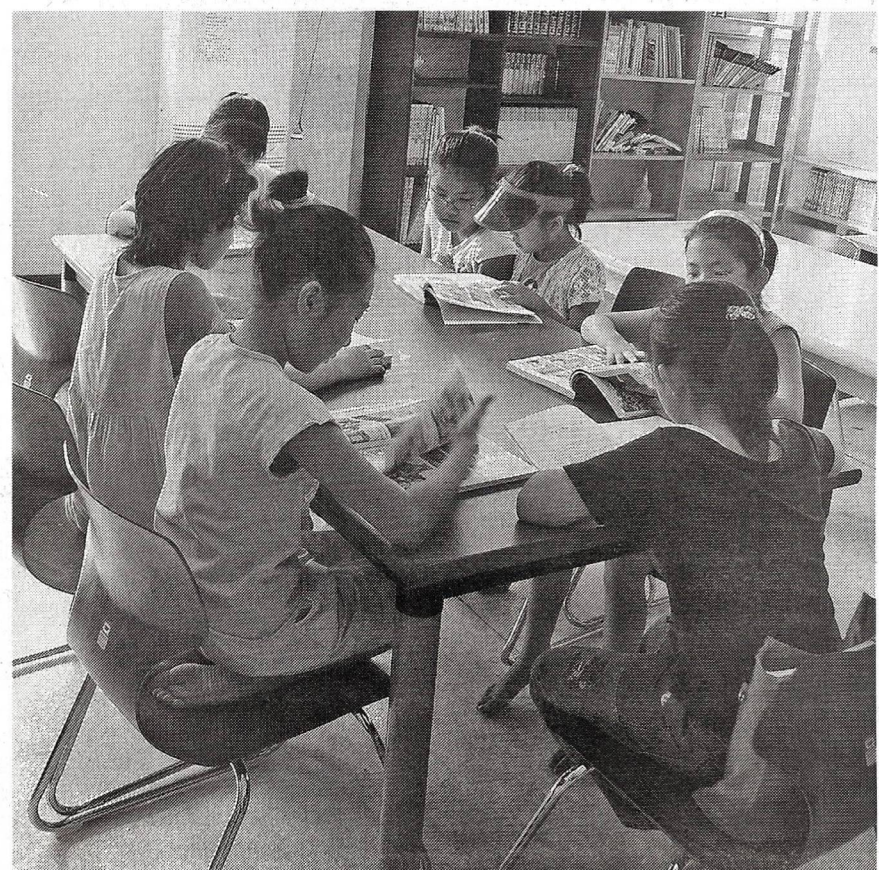
사람들은 악도(惡道)의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천도재가 영식에 있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를 실감치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업력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도재란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거나 죽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악도(惡道)의 세계를 말씀하시기를 - 축생이나 미물의 몸을 받아 자기보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3시~4시 : 태권도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충지문예

중학생이 된 소감과 각오



한창우 동해중학교 1학년 2반

2007년 3월 3일, 정들었던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지난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막상 중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무언지 모를

책임감과 무거움이 가슴을 누른다. 초등학교 때는 신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 선생님들의 모습이 좀 무섭기도 하고

불공하시는 어머니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

어떤 선생님은 재미있어 보이기도 한데, 아직은 선생님들의 성격을 다 알지 못한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바뀌는 선생님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또 과목마다 그 과목을 전문적

으로 공부한 선생님께 수업을 받으니까 내 자신이 뿌듯한 느낌도 든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고 초등학교 때와 달리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겠다.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요즘 어머니께서는 직장에 다니느라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불공을 드린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불공을 드린단다. 불공을 드리며 노력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

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머니께서는 동해중학교가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더욱 좋아하신다. 나는 학교가 우리집에서 너무 가까워서 정말 좋다. 초등학교 때는 등교 시간을 8시 20분에 집에서 나왔지만 중학교 때는 거리는 더 가깝지만 8시에 나서서 일찍 등교하여 책도 읽고 수업 준비도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 소원이시기도 하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나면 1등을 목표로 노력을 할 것이다.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부모님 말씀처럼 최고의 수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나 자신과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하면서 노력해야겠다. 나는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달의 생활요가

홈 요가, 왜 자꾸 실패할까

1. 자세를 교정해줄 사람이 없다

요가는 정확한 동작과 호흡이 생명. 한 동작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손바닥과 발바닥이 위를 향하느냐 아래를 향하느냐', '목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등이 중요한데, 혼자 따라하다 보면 그런 미묘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심지어는 틀린 동작을 취해도 객관적으로 교정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2.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불규칙적으로 한다

집에 있다 보면 의지가 약해져서 시간 날 때 불규칙적으로 하기 쉽다. 요가는 일정한 몸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본다. 원래 요가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해질 때'와 '해 뜰 때'. 하지만 그렇게 맞출 수 없다면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빨래를 돌리면서', '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짬을 내어 하는 요가는 효과가 없다. 집일이라도 요가를 하는 시간만큼은 혼자서, 조용히, 집중해서 해야 한다.



3. 개별 맞춤 지도를 받을 수 없다

여러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각자의 몸상태에 따라 유난히 잘되는 동작이 있고, 잘 안 되는 동작이 있다. 예를 들어 서서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힘들고 잘 안 되는 사람은 간과 신장이 안 좋은 것. 이렇게 어떤 자세가 유난히 힘들다면 비슷한 효과를 내는 보다 쉬운 동작을 배워야 하는데, 획일적인 요가 교재로는 맞춤 지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가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배울 수 없는 것이 홈 요가의 단점.

4. 비디오테이프의 모든 동작을 따라한다

혼자 요가를 하다 보면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놓고 여러 동작을 무작정 반복하기 쉽다. 특히 혼자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어려운 동작은 따라하지 않는 등 열성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요가는 무성의한 여러 동작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여러 동작을 취해보고, 자신의 기혈 흐름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로 3~5동작 정도만 찾아내서 매일 반복한다.

5. 식후 또는 식전에 요가를 한다

요가는 보통 식후 2~3시간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거나 너무 허기졌을 때는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요가 후에도 1시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해야 요가의 좋은 기운이 오래간다. 요가 직전과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6. 머릿속에서 땀생각을 한다

요가(Yoga)란 산스크리트어로 '뛰어다니는 말의 고삐를 잡는다'는 뜻으로, 요통치는 마음을 요가 수행으로 잡는다는 것. 요가는 마음의 수양이 꼭 함께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요가를 하는 순간만큼은 걱정이나 고민, 스트레스 등은 날려버리고 좋은 생각, 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효과가 있다.

이달의 추천도서

장자 도를 말한다(오쇼의 장자 강의)

오쇼 지음/ 청아출판사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 <장자, 도를 말한다>는 2005년 출간된 <삶의 길 흰구름의 길>에 이은 오쇼의 두 번째 장자 강의집이다.

<삶의 길 흰구름의 길>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이번 책은 사회적 권위, 이미 확립되어 있는 깨달음 등에 얽매어 답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서라고 말한다. 오쇼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해매는 많은 궁극증, 즉 개인적인 의문에서부터 사회적 문제,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있으며, 동양의 지혜와 서구의 기술을 넘나들며 이런 궁극증들에 대한 고찰의 단초를 제시한다.

내 마음에 남은 절

강석경 외 지음/ 산처럼

우리에게 절寺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 위안, 추억, 깨달음, 인연, 스님, 가람, 고졸함 등 8개의 주제를 통해



본 절 이야기

절은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문화이며, 천년의 세월이 응축된 역사다. 절이란 본디 스님들의 수도처이지만, 각 시대마다 학자, 문인, 스님들이 사상이나 문화를 주도했던 산실이기도 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절은 간절한 염원을 담고 발길을 했던 기도처이며, 우연히 들려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청정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문화계 인사들이 생각하는 절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 책 <내 마음에 남은 절>에서는 불교신자로서가 아닌, 소설가, 시인, 화가, 사진작가, 건축가 등 문화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의 어느 한 순간이나 일정 시기 겪었던 절에 대한 인연들을 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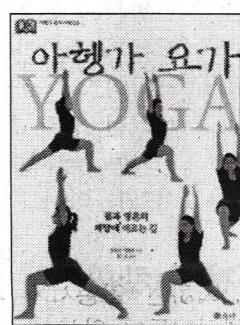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도 오래도록 가슴에서 향기를 내며 남아 있는 절과의 인연들을 이름다움, 위안, 추억, 깨달음, 인연, 스님, 가람, 고졸함 등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했다. 이는 이 책을 읽는 각자가 마음에 품어온 절과 그 사연이 겹쳐지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절들에 대한 정보들 <내 마음에 남은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절들은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처럼 삼보사찰이기도 하지만, 산속 작은 암자인 경우도 있으며, 오랜 세월 닳고 닳아

쓰러져가는 절이기도 하다. 52군데의 절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각 글들은 객관적인 정황기록보다 절에 머물렀던 당시 각자의 마음속에 그려진 모습이어서 각 절에 대한 정보들, 즉 소재지, 창건시기와 창건자, 그리고 역사와 문화,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등을 부록에 <내 마음에 남은 절 찾아가기>라고 하여 따로 정리해 실었으며, 역시 부록에 각 절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남은 절 지도>를 실었다.

아헿가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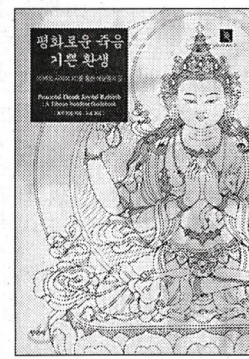
BKS아헿가 지음/ 선요가 출판사



요가 수행 지침서. 이 책은 하타 요가의 스승인 B.K.S.의 90년 요가 인생이 담긴 요가 지침서의 결정판으로 파탄장리의 요가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체득한 요가 수행론의 핵심이 아름다운 사진과 더불어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200여 가지의 아사나들 중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사나들을 정선하여 초보 단계에서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아사나를 명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책 뒷부분의 20주 요가 수행 과정은 요가 수행의 깊은 경지로 이끄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평화로운 죽음 기쁜학생

둘쿠 린둠 림포체 지음/ 도솔 옮김/ 청년사



티베트불교는 죽음의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최고의 명상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끝없는 고통의 환생으로 들어가는 문일뿐이다. 툭루 린둠 림포체는 이 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을 치유하고, 이런 변화의 과정에 대비한 우리의 수행에 힘을 더해준다. 또한 죽음과 환생의 순간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삶 속에 존재하는 궁극의 평화와 기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천문학자, 우주에서 별들을 찾다

이시우 지음/ 도피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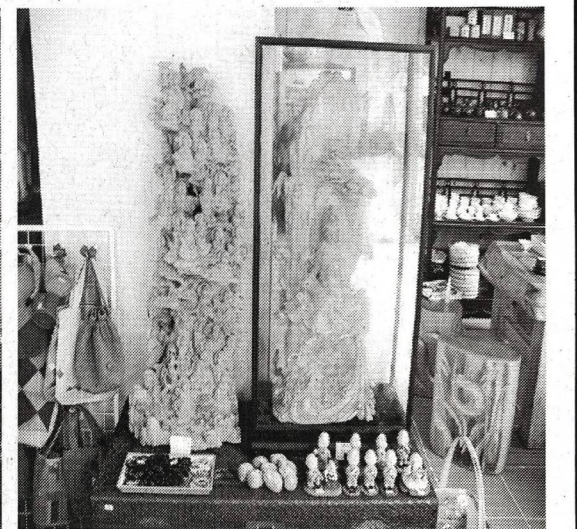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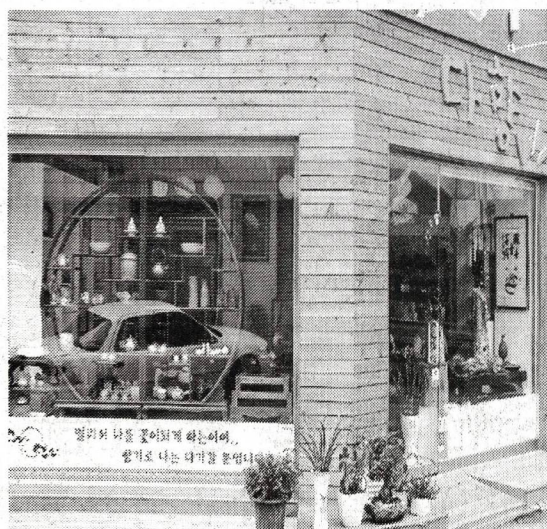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가 이야기하는 화염세계. 저자는 오늘날처럼 물질문명에 찌든 인간에게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는 책에서 우주 만물의 근본 본성인 우주심을 살펴보면서 화염세계의 특성이 무엇이며, 화염세계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다. 또한 별의 세계 속에서 불교의 설법을 찾는다.

다 향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여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 작설), 보이차, 오롱차, 고급자사호, 차 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충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불교중앙박물관 역사적 개관

1700년 한국불교문화 진수 선보여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기념법회.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 진수를 보여줄 불교중앙박물관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 문을 열었다. 26일 열린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

님,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동춘 원명 초우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김의정 조계종중앙신도회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전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사바세계 모두가 살

아 움직이는 박물관이요, 낱낱 중생들의 삶이 모두 성보 아님이 없거든 모름지기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의 도리를 이 자리에서 깨치는 정각도량이 되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양근 청와대불자회장(청와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불교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며 "불교중앙박물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은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는 물론 성보를 통해 문화유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불교 유형문화유산의 진수를 한눈에 보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명실상부한 기념비적 종합문화공간이 완성됐다고 믿는다"고 인사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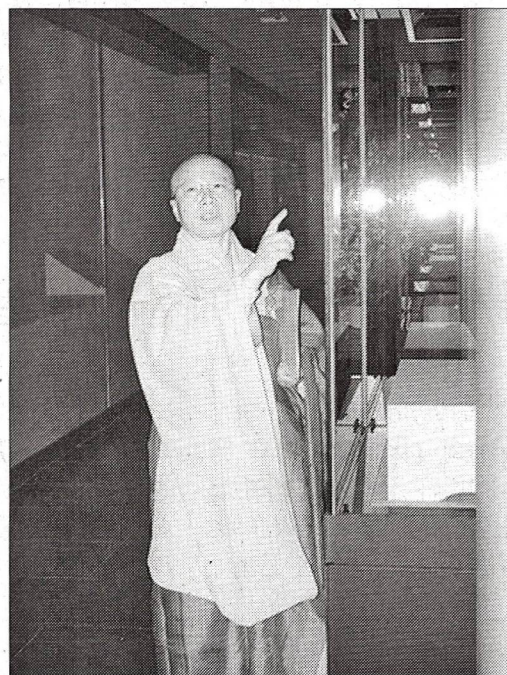
식후행사로는 전시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현관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전시장 관람과 리셉션이 이어졌다.

불교중앙박물관은 360여 평의 전시실과 150여 평의 수장시설, 30여 평의 보존처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은 '불교미술', 제2전시실은 '불교역사', 제3전시실은 '불교공예'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으며, 시청각실도 갖춰져 있다.

금동불입상(국보 제182호)과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 등 120여 점이 유물이 전시되는 개관특별전 '붓다(佛)'는 5월 24일까지 계속된다. (02)2011-1960

석가탑 유물 반환공방, 갈수록 격화

불교계 - 中央博, 소유 - 관리 공방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스님이 석가탑 출토 유물이 들어올 전시부스를 가리키며 종단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 해체수리 과정에서 수습한 사리장엄구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불교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리장엄구의 법적 소유주는 명백히 조계종 산하 불국사지만 그것을 위탁 관리 중인 곳이 중앙박물관이어서 '소유'와 '관리'의 괴리가 이번 사태를 부른 직접 원인이자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사실 간단하다. 돌려주면 끝이다. 이번 사태 초반기만 해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식으로 곤혹스

런 표정을 보이던 중앙박물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반환 불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강경자세로 돌변하면서 그에 따른 조계종의 반발 또한 격심해지고 있다.

유물 이관 요청에 대한 박물관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가탑 발견 유물을 박물관이 보관하게 된 경위는 불국사에 의한 기탁이 아니라 1967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교부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이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둘째, 이 유물의 운명은 단순한 종교계의 소유권 차원을 넘어 법국민적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국가적 박물관의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관리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한 석가탑 유물은 '국가문화재'이므로 운국민의 것이니 특정 '종교계'가 독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이므로 그런 문화재는 당연히 국가박물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환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불국사에서 위임받은 조계종이 이를 용납할 리 만무하다. 격화된 반응일색이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만 세계문화유산인가? 그것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나 불국사 성보박물관에 있으면 '세계문화유산'이 아닌가? 박물관 논리대로라면 석굴암도 포함산에서 뽑아가겠다는 소리인가? 어쩌서 반환을 반대하는 논리가 위규장각 약탈 고문서 반환을 반대하는 프랑스측 논리와 그렇게 닮아 있는가?"

어쩌면 문화계는 이 문제로 당분간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이 중재자로 나서려 해도 '2천만 불자'를 앞세운 조계종의 강경한 입장 때문인지 설자리가 끼어들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

한불사 주최...4월 20일까지 접수
중고생 불자 신앙심 고취시킬 전망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강승규·이하 한불사)는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존 사진전시회와 연계해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 불자들의 신앙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의 주제는 △불자들의 신행모습 △불교문화재 등 불교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응모방법은 가로 2천5백 픽셀이상의 'jpg' 이미지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보정은 가능하나 합성사진은 불가하며 참가비는 없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

지이며, 접수처는 한불사 홈페이지 www.buddhaphoto.org 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장학금 50만원이, 금상 수상자 1명에게는 30만원이, 은상 수상자 2명에게는 20만원이, 동상 수상자 3명에게는 10만원이, 입선 수상자 50명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한불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봉축기념 사진전 사회서 우수작품 동시 전시 및 도록에 수록된다.

강승규 회장은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져 좋은 작품들이 모아질 기대한다"고 말했다.(02)425-2655

총지종 집행부에게 듣는다① - 총무부

"종무행정 효율성 제고에 노력"



경원정사

일선에서 교화생활만 하다가 중책을 맡게 되니 걱정이 됩니다.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포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바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선 사원에서 원하는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사원의 보수와 교화방편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교계 구입 등도 검토

할 것입니다.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종무행정의 효율성은 부서간, 실무자간의 긴밀한 관계에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부가 집행부의 중심부서인 만큼 이런 점을 잘 조율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종단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포교와 교세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식이나 교화방편 등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 가면 그만큼 포교 교화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인재 양성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개

개인의 맨파워가 큰 조직이라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종단은 거시적 목표를 세우고 상원들의 자질향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종단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종단 발전을 위해선 화합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정신, 종단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합이 없으면 종단이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서로 밀어주고 아껴주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존 최고 목판 '화엄경 수창판' 일반 최초 공개

해인사 성보박물관, 목판특별전 '유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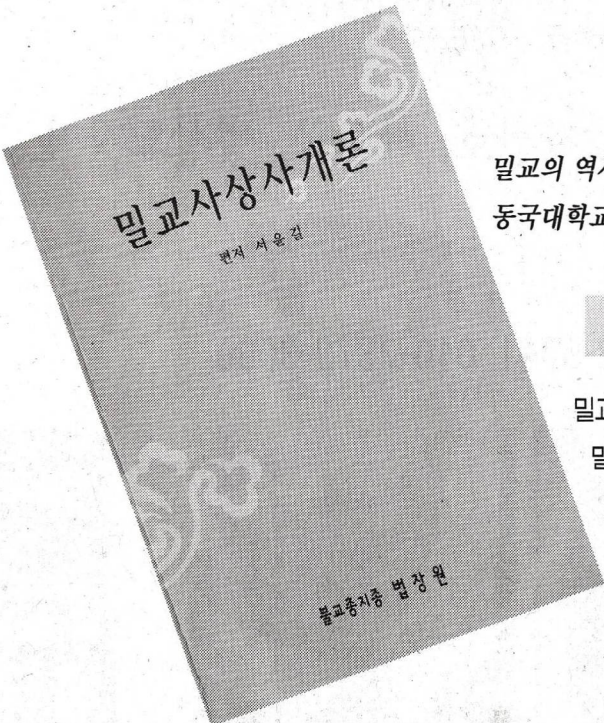
고려 초조대장경 판본으로 추정되는 현존 가장 오래된 목판인 '화엄경 수창판'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80화엄경 변상' '대각국사 문집' '불설예수시왕경' 등 국보 206호 진본(眞本)과 '역대왕조년표' '불정심다라니' 등 보물 734호 진본을 포함, 모두 36점이 함께 선보인다. 합천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본해)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목판특별전 '유일(唯一)'을 통해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함께 최초로 공개되는

'통일신라 묘길상탑 은제사리병'을 불교공예실에 단독 전시한다. 불교조각실에서는 통일신라기 해인사 출토 소탑편(小塔片)도 최초 공개하는 '특별전 속의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또 지난해 작고한 세계적 비디오키의 창시자 故 백남준 선생의 유작인 '팔만대장경 (부제: 해인사 판타지)'과 고려대 진영선 교수의 프레스코 벽화 '시간의 연상'도 박물관 2층의 '백남준관'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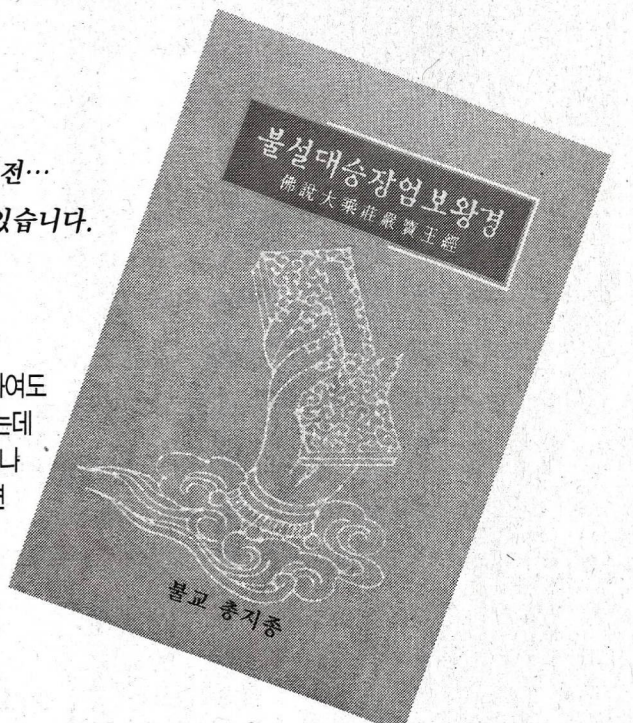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해춤)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연등축제 준비 본격 가동

봉축위, 연희단 1차 회의 갖고 안무 연습 4월 22일 동대 만해광장서 전체 리허설



◇2007년 연등축제 연희단·울동단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 '불기2551년 연희단, 어린이·청소년울동단' 1차 회의에서 양선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간사의 시범을 따라하고 있다.

2007년 연등축제 연희단·울동단 관계자들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 '불기2551년 연희단, 어린이·청소년울동단' 1차 회의에서 양선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간사의 시범을 따라하고 있다.

2007년 연등축제 연희단·울동단 관계자들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 '불기2551년 연희단, 어린이·청소년울동단' 1차 회의에서 양선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간사의 시범을 따라하고 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란 주제로 열리는

진행했다.

이날 봉축위는 연등축제의 본 행사가 진행되는 동대문운동장에서 각 연희단·울동단의 위치·준비사항·주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봉축위는 이어 각 연희단·울동단과 1그룹부터 5그룹의 안무·배경음악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이날 참석자들은 배경음악에 맞춰 안무를 연습했다.

이날 박상희 봉축위 과장은 "연등축제에서 연희단·울동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2007년도 연등축제에서도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어 "과거 동대문운동장에서 공연할 때 연희단·울동단의 위치관련 문제가 많았다"며 "2007년도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연희단·울동단 전체연습이 있으며 이날 동참하지 않는 단체는 본 행사인 연등축제에서 제외된다.

평화부문 봉고 가봉대통령

제11회 만해대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8월 12일

문학부문 김남조 시인... 학술부문 유종호 평론가
포교부문 랭카스터 교수... 특별부문 서인혁 총재
노벨상 수상자 4명·국가원수 3명 상 받아
국경과 종교 초월한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



평화부문 봉고 가봉대통령

봉고 온담바 가봉화국 대통령이 제11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는 지난 19일 만해대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가 선정한 제11회 만해대상 수상자 6명을 발표했다. 이번 수상자는 △평화부문 가봉화국 봉고 온담바 대통령 △문학부문 김남조 시인 △학술부문 유종호 교수 △포교부문 랭카스터 전 버클리대 교수 △실천부문 비쉬누 니스트리 회장과 네팔가자 연맹 △특별부문 국술원 서인혁 총재 등이다.

이번 심사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전선 강원도지사·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양승태 대법관·김희욱 헌법재판관·정후스님·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유자효 시인·이상국 만해마을 운영위원장·김재홍 만해학술원장 등이 참여했다.

실천부문 네팔가자연맹, 사진은 회장 비쉬누 니스트리.

상금은 외국인 3만 달러(미화)·내국인 각 3천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8월12일 오후3시에 개최하는 2007만해

축전 입재식을 겸해 인제군 백담사만해마을에서 열린다. 평화부문 수상자인 엘하지 오마르 봉고 온담바 대통령은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40년간 재임하며 1990년부터는 다당제와 민주헌법을 도입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해 민주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특히 봉고 대통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중립국가로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꾸준히 기여했다. 우리나라와도 1962년 수교한 이래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의료협력·과학기술은 물론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친선관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봉고 대통령은 차드·중앙아프리카 공화국·콩고-브라자빌·앙골라와 자이레 분쟁의 조정역할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해왔다. 1999년 2월에는 콩고-브라자빌간의 정부와 무장 저항군 사이의 전쟁 속에서 평화조약을 성사시켜 콩고의 평화정착과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만해대상은 만해 한운운 스님의 열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수상자 중에 는 노벨수상자가 4명, 국가원수가 3명이나 포함돼 있어 범세계적·범종교적 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새봄 맞아 학술서 발간 잇달아

새봄을 맞아 불교계 학술 단체들이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기 학술서를 잇달아 발간해 눈길을 끈다.

보조사상 27집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보조사상》 27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간화선과 보조사상'이라는 주제의 특집논문 이외에도 지난해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투고논문들 중 심사를 통과한 8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한국선학 16호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한국선학》 16호를 최근 내놨다. 이번 논문집에는 동국대 박사 윤철남의 <능가경의 선사상>을 비롯해 동국대 강사 혜명스님의 <천태의 마장에 대한 고찰>·불

교문화연구원 최동순 연구원의 <초기 천태교단의 행의 고찰>·불교문화연구원 원영상 교수의 <전시체제의 종교탄압과 불교계의 저항> 등 총 9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전자불전 8집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원(소장 보광)도 정기 학술서를 선보였다. '불교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논문집에는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이금석 교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 구축>·동국대 인도철학과 황순일 교수의 <문화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방안> 등 7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과학과 종교의 공존 모색하다

과기부 지난 19일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 포럼 개최



◇과학과 종교의 공존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갈릴레이의 지동설·다윈의 진화론 등은 당시 서구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과학이론들이다. 역사 속에서 과학과 종교는 공존보다는 갈등의 상황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과학과 종교의 공존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화제가 됐다.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나도선)은 3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

서 '제4회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학 전공자와 종교계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종교와 과학은 상호보완

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불교와 과학은 어떤 형식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DNA와 연기, 불교와 과학의 생명관'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불교와 과학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불교계에서 간혹 제출되는 포용주의 담론(inclusivist discourse)형식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즉, 과학이 지극 파악해내는 것들이 불교의 통찰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식의 담론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전제를 공유하지 않으며 접근 방식도 다른 과학과 종교가 대면해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무 소득도 없다"며 "이는 오히려 오도의 해악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문영민 교수는 주제발표문 '과학기술과 종교-미래지향적 패러다임'에서 "과학과 종교는 자연현상의 관찰이라는 공통의 모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류의 조상들이 생존환경의 '우발성'을 제어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하고 불·사냥·농경 기구들을 만든 것이 과학기술의 기원이라면, 이런 우발성의 공포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현상의 배후에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는 신화적 의의소통이 종교의 탄생 배경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미래를 '멋진 신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종교는 상호 보완·비판 견제하면서 총체적 관찰·정의의 최적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최적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Visual Communication Advertising design Editori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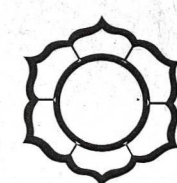
기획 인쇄물 전문

- 광고기획
- 홍보전단
- 카타로그
- 브로슈어
- 리플렛
- 팜플렛
- 사보
- 서적류(양장,무선)
- 다이어리
- 명부(수첩)
- 쇼핑백
- 각종봉투
- 카렌다
- 앨범
- 샘플북
- BOX류
- 행가,행택
- 스티카,리벨
- 청첩장
- 연하장
- 메뉴얼
- 현수막
- 상패,트로피
- 판촉물

기타 일반인쇄물 및 광고 판촉물 일체

사무실 / 디자인실
서울·중구 인현동 1가 124-3호
호수빌딩
TEL : 2277-2900(대), 2277-3639
FAX : 2277-3668
H·P : 018-361-9663

공장
서울·중구 인현동2가 215
TEL : 2265-5356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ID-dong455667
PW-455667



동림기획
Orient Communications
代表 金東雲 (佛名:修正)
관성사 교도

전통사찰 문화탐방

'미래 부처님의 도량' 김제 금산사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종보 편집팀 도반님들!

나에게 있어서는 세속말로 함께 함으로써 행복한 분들이다. 금산사 탐방은 이렇게 행복감을 한 아름 보듬고 힘차게 출발 하였다

아침나절 약간은 쌀쌀한 듯 했으나 햇살이 새봄소리를 들려준다. 어느새 파랗게 돌아간 새싹들 그리고 산수유 꽃이 노랗게 피어 한껏 봄내음이 물씬 풍겨온다. 중간 중간 쉬어 가는 구름처럼 우리들도 나름대로 여유로움을 가져 본다. 봄 처녀처럼 잔뜩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도착한 금산사는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 일행에게 다가온다.

주차장에서 내려 조금 걸으니 석불입상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맞는다.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근거지이기에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어느 노 보살님께서 정한수를 바꾸어 놓는 모습이 불심 가득한 얼굴 그자체이다.

개울가를 지나니 다소곳이 피어나는 산수유 꽃도 정겨울 뿐이다

일주문 넘어 금강문이 눈에 들어온다.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 등 다섯 부처님을 봉안하여 정토 사상의 연화장세계를 그리고 있다

우리종단의 주불이신 비로자나불을 친견 하는 것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화엄종 관련 사찰에서는 화엄경에 근거해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시고 전각명은 비로전이라 하기도 한다. 서쪽으로 향한 3층 미륵전은 금산사의 중심 법당인데 『진표율사 진신장골탑비명』에는 '진표율사(眞表律師)가 미륵장륙상을 3층전에 봉안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의 모습은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35년(인조 13년)에 수문대사가 중건한 것이다.

미륵전은 1층에는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에는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에는 '미륵전(彌勒殿)' 등의 각기 다른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들 편액



미륵세상을 구현한 국보 62호 미륵전.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근본 도량으로 미륵의 하생 처로 미륵 전을 조성하고 도솔전을 구현하여 미륵상생신앙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즉,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을 조화롭게 겸비한 신앙적 성격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금산사를 내려 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도 뒤돌아 보는 시간도 가졌다. 법구경에 '행해야 도를 얻는다'는 구절처럼 중생이자 보살로서 참회와 수행을 행한다면 삼독으로 가득찬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울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최혜선

지로 활용. 환성 지안에 의해 화엄 대법회 개최, 1961년 송월주 스님 주지로 취임...등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절을 돌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공

형상화된 모습일지라도 한번쯤은 청정법신 이신 "비로자나불"을 뵈고 싶었다.

모악산 깊은 골짜기 그곳에서, 마치 선문답에 응하시듯 그 분의 잔잔한 미소와 마주할 수 있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복했다.

-심일화

— 각도반 이야기

진표 율사의 중창, 견훤이 금산사에 유배됨. 혜덕왕사 재 중창. 원명 해원의 중창. 임진왜란시 처영 뇌묵 대사가 일전 승병의 거점

불심 깊은 도반과 함께하는 사찰탐방 언제나 환희심 일어나고.....

고할 금산사의 대적광전 앞에 서니 세속의 속진번호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구나

-대법신



방등계단과 적멸보궁.

지금껏 둘러본 어느 사찰과 달리 금강문이 있는 것이 조금은 이채로운 모습이다

절의 중요한 행사나 법회가 있을 때 깃발을 걸어서 이를 알리는 일종의 안내판이 당간(幢竿)이고, 당간을 지탱하는 것이 지주(支柱)이다. 금산사 당간지주는 금강문에서 동북쪽으로 50m쯤 떨어진 절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천왕문을 지나 넓은 가람에는 남쪽으로 향한 대적광전을 볼 수 있는데.

때마침 이곳에 회주로 계시는 송월주 스님을 우연히 만났다.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스님 얼굴에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었다

대적광전에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은 이름만 다르지만 모두 미륵불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륵이라 하면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비를 갖춘 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비는 모든 이의 기쁨과 슬픔을 포용하는 말로서 적극적인 종교적 실천 의지의 표현이다.

미륵전 뒷쪽의 방등계단은 수계법회를 거행할 때 계법을 전수하는 일종의 의식법회 장소이다. 방등계단 옆에는 5층 석탑과 적멸보궁이 함께 자리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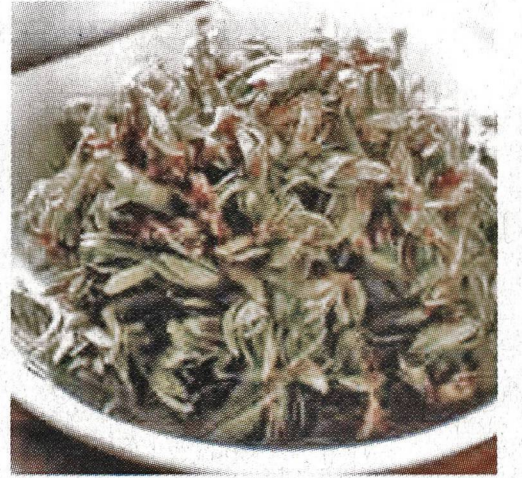
이밖에도 금산사에는 500나한이 모셔있는 나한전과 전각 꼭대기에 복발과 복주가 남아 있는 대장전을 비롯하여 조사전, 육각 다층석탑 등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륵전을 마주 본 탑 형식을 취한 대장전. 지붕에 옥개석이 보인다.

이달의 사찰음식①6

▶돌나물김치



재료

돌나물 200g, 보리 삶은 물 1컵, 고춧가루 2큰술, 미나리 3뿌리, 소금 1½ 큰술, 생강즙 1작은술

만드는 법

- ① 돌나물은 손질하여 깨끗히 씻어 둔다.
- ② 미나리는 다듬어서 씻은 후 2cm 길이로 썰어서 준비해 둔다.
- ③ 보리쌀은 푹 ●국물을 받쳐서 식힌 다음 고춧가루, 생강즙, 미나리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둔다.
- ④ 미나리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사용하면 된다.
- ⑤ ①, ②를 한 켠씩 엮고 ③을 끼얹는 식으로 두어 번 정도 나누어서 한 후 실온에서 하루쯤 둔 뒤에 먹는다.

▶참가죽장아찌



재료

참가죽 400g, 고추장 4컵

만드는 법

- ① 참가죽은 나무에서 딴 즉시 연한 잎을 떼어 씻은 다음 물기를 빼고 찜솥에 살짝 찌서 식힌다.
- ② 넓은 소쿠리에 얇게 펴서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 고추장에 버무린다.
- ③ ②를 항아리에 꼭꼭 눌러서 담고 위에는 고추장을 넉넉하게 덮는다.

연등축제 연희단 모집

-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나투심을 기리는 연등축제!!



나와 부처, 중생이 하나되는 어울림 한마당에서 부처님 의 세상을 열어갈 연등축제 연희단 단원을 모집하오니 여러 불자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집시기 : 수 시
연등축제행사 : 5월 20일, 동대문 야구장
연락처 : 02-552-1080
담당 : 윤상호 교무



정각사 바라밀 아동센터 인기 만점~

신청 접수 쇄도 몇 개월간 대기해야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한문 학습을 하고 있다.

부산 정각사 부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지정)가 부산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9월 개설되어 정각사 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 1월부터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는 올 1월부터 3월 사이 수십명이 접수하여 25명의 정원이 초과되었으며, 현재에도 신청 접수가 쇄도하고 있어 몇 개월간 대기해야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호응도가 대단하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방문한 학부모와 아동은 "부산의 명륜동 지역에 시설과 강사진이 훌륭한 바라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줄 몰랐다"며

"정서적으로 결핍된 저소득자와 불우아동, 맞벌이 아동들에게 요가, 미술, 영어학습 등 정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고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훌륭한 강사진, 지속적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정각사와 종단의 지원으로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의 가정에 매달 쌀 1포대씩 전달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불우교도는 우리의 힘으로"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도우미 공동체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송)은 중단내 불우교도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며 자체 도우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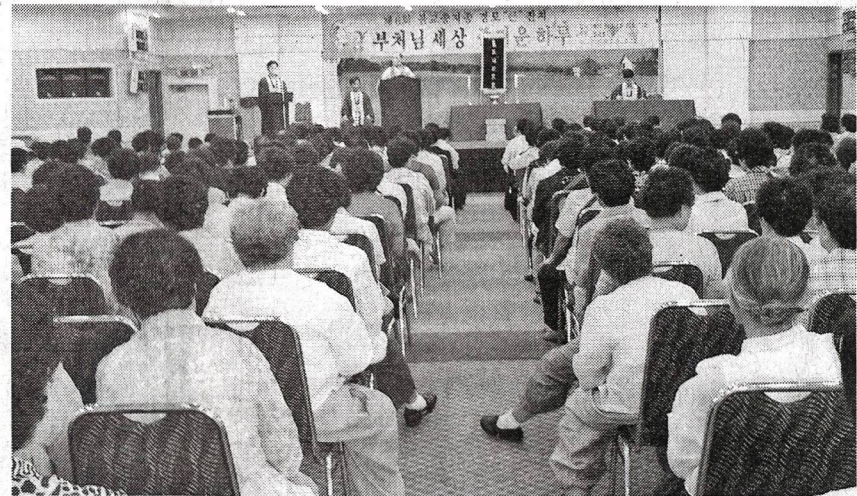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의 도우미 공동체는 중단내 모든 스승과 교도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모금, 불우교도들을 지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도우미 공동체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교도들에게 모금된 일체 금액을 어렵고 힘든 교도들의 생활보조에 지원해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도우미 공동체는 매달 후원한 후

원자의 명단을 총지중보를 통해 공개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달 모금된 금액은 각 사원별 불우교도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매달 5~6명에게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우교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벌 도량에서 불공하는 진언행자 수행공동체로서 어렵고 힘든 불우교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승과 교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법회를 열고 있다.

신행체험 39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세요"



강 윤 옥 보살
(정각사 교도)



이 갑 순 보살
(정각사 교도)

"뒤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만 보고 하루 한 번씩 회상하고, 목적지에 당도하라. 그리고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아라"는 정각원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정각

원 스승님과 부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 십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하고 있다.

부처님과 밀법의 오묘함을 체득하며, 참회와 깨달음을 통해 하루에도 수 십번 흔들리는 마음자리를 잡아가며, 현재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실천이 있었기에 편안함과 행복함이 두 노보살의 삶속에 배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기 힘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믿음과 정각원 스승님의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만 보고 수행하라'는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

원 스승님과 부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 십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하고 있다.

부처님과 밀법의 오묘함을 체득하며, 참회와 깨달음을 통해 하루에도 수 십번 흔들리는 마음자리를 잡아가며, 현재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실천이 있었기에 편안함과 행복함이 두 노보살의 삶속에 배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기 힘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믿음과 정각원 스승님의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만 보고 수행하라'는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

인과법을 믿고 바르게 생활하고

실천하면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

어렵고 힘든 젊은 시절 낮에는 장사 하거나 직장에 다니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에 정각사에 나와 불공하고 집에 가기를 33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팔십 노구의 몸이 되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각사에 나와 불공한다.

"내가 정각사에서 보이지 않는 날이 죽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노보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정각사에서 불공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요, 극락이다.

한마디로 정각사의 신령이요, 도량을 지키시는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하루 종일 정각사에서 불공하십니다.

불공하시는 두 노보살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하다. 오랜 세월 동안 불공하지만 "아직도 뒤를 업장이 많다"며 그 업장소멸을 위해 불공한다.

이다.

두 노보살은 "신성한 부처님의 도량에도 보이지 않는 장애와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마음속에 수 많은 마귀와 장애가 도사리며 평탄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흐르는 세월에 순응하며 바른 마음으로 인연의 법칙과 인과법을 믿고 바르게 생활하고 실천하면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고 자신만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정표를 가르쳐 주신다.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서원당 문을 들어서서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항을 피우시는 모습 속에 부처님의 화신이 보이는 듯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나오겠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계시는 두 노보살님에게 건강과 부처님의 기도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세상사는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계절이 바뀌고 있다. 올해는 봄이 한달 가까이 일찍 찾아 왔다고 한다. 남쪽에는 벌써 봄 꽃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트렸다고 한다. 나무에도 물이 올라 곧 푸르름을 우리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추운 겨울 씩씩하게 봄을 준비한 자랑스러움을 한껏 보여 줄 것이다.

빌딩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던 팬지 꽃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걱정이야. 다행히 누군가가 비닐 외투를 껴 입혀 놓았다. 떠나기 싫어 다가오는 봄에게 심술을 부려 제일 춥고 바람 부는 일

유 꽃들이 꽃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그대요 봄의 향연이다. 사람들도 덩달아 꽃이 된 듯 한껏 들뜬 마음으로 봄을 만끽 하고 있다.

때로는 따뜻하고 희망찬 봄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고 슬프게 할 때도 있다. 해 놓은 일도 없는데 봄은 어김없이 또 찾아 왔구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이런 느낌을 받는다.

리아졌다. 갑자기 머리 속이 하얗게 된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지나간 삶, 닳아떨어진 무얼 할까?

이젠 내 인생의 봄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살아야겠다. 갑자기 희망이 생긴다. 내 인생의 봄은 내내에도 그 다음해에도 계속 찾아 올 테니까...

하얗게 빛이 바랜던 머리 속이 푸르른 싱싱함으로 가득 차는 것 같다.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겼다. 나무도 찾아 보고, 꽃도 찾아 예쁘게 봐 주고, 겨울 동안 수고 한 온갖 풀들에게도 '애썼다, 너희들이 있기에 세상은 빛나고 아름다운 것 이란다.' 말해 주고 싶다.

내게 다시 찾아온 이 봄. 거대한 희망의 물결 위에 내 몸과 마음을 싣고 같이 흘러가 보자.

- 박요정

인생의 봄은 만들어 가는 것

씨넨스러운 경칩을 선물한 겨울은 마음을 바꾸고 포근하고 따뜻한 함박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고운 뒷모습으로 떠났다.

따뜻한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과 마음도 한결 밝아지고 가슴 가득 희망을 품게 된다. 드디어 남쪽에는 동백, 매화, 산수

매년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꽃과 나무들이 부럽다.

인생의 봄도 해마다 다시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봄은 너무 의미 없이 보낸 것 같다. 인생의 가을에 서서 뒤 돌아 보면 여름도 바쁘게만 보낸 것 같다. 이제부터 인생의 겨울맛이 준비를 서둘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어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옥 실장 (송수섭 보살 삼녀)
홈페이지: bomstudio.com



진언행자의 가족을 찾아서 | 국광사 김연조 고도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육자진언이 있으니까요”



친년 고도 경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었던 곳이라서 더욱, 운이 좋으면 유명한 보문호 뱃꽃구경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었고, 화신은 늦게 올라왔다. 대신 노란 산수유 꽃이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국광사로 가는 길가 경찰서 안뜰에 오랜 풍상을 겪었을 것 같은 삼층석탑이 서 있다. 역시 불적지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착한 보살”

멀리 대구경북 교구 국광사가 눈에 들어왔다. 도량이 아늑해 보인다. 오랜 불공기도가 행해지던 곳이라서 일가, 편안한 느낌이다. “우리 착한 보살 인터뷰 잘 써주세요!” 한가

로운 봄 낮 과수에 흙을 북돋고 있던 스승님이 그러신다.

착한 보살이라는 말에 미소가 지어졌다. 국광사 금강심 보살(김연조, 54)은 착한 보살일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때부터 진언수행과 인연이 된 이후 지금까지 40여년이 넘게 절에 와서 불공과 온갖 불사를 돕고 있으니 말이다.

금강심 보살 집안은 참으로 불연이 깊다. 할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진언수행을 하였고, 친정 다섯 형제들이 모두 절에 다닌다. 뿐만 아니라 삼촌과 고도, 사촌오빠와 동생이 승직자다. “은가족이 모두 교도이다 보니 좋은 점이 많아요. 무엇보다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불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곳에선 남에게 지장을 줄까봐 못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진언 염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그리고 같은 종교 같은 수행을 하니 자연스레 부처님 법으로 한 몸 한 뜻이 되고, 항상 정성으로 화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강심 보살의 수행생활이 좋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스물 다섯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의 신앙이 달랐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신앙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금강심 보살은 처음엔 진언행자라는 것을 숨기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처신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도를 넘어서 신앙은 급기야는 샷된 쪽으로 흘러 갔다. 무슨 일인지 금강심 보살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실려 가면 병명을 모른채 되돌아 나오기 일쑤였다. 온갖 크고 작은 장애도 생겨났다.

그러던 중 어느 때 시어머니가 오신 날 마침

“그 당시 모든 게 바다까지 갔어요. 극단적인 생각마저 했었습니다. 남편 원망도 많이 했구요. 모든 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조삼해서 공부를 계속하다보니 어느 때부턴가는 이해가 되고 괴로운 순간을 넘어 가게 되더라고요. 원망심이 들 때면 내 허물이 떠올려 지고 참회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때 진언수행이 없었다면 아마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금강심 보살은 아들 자량이 대단하다. 아들은 국내의 문화예술계 내로라 하는 석박사급 인재들이 모인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닌다. 한예종에 최종합격을 하고는 모든 게 다 어머니의 불공기도 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의 작은 도

지성으로 불공을 해왔고, 이제 아들은 어머니의 수행생활에 가장 큰 후원자가 됐다 한다.

금강심 보살은 인생의 고비 고비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했다. 거기서 얻은 지혜로 세파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겐 부처님과 육자진언이 있으니까요”

금강심 보살은 예전엔 깜짝 놀랄 때에는 “엄마!”를 찾았는데 요즘엔 “오마니 반메흠”으로 바뀌었다며 활짝 웃는다. 보살에게는 어릴적부터 불러왔던 오마니 반메흠이 따뜻한 엄마품과도 같은 것이리라. 절 문을 나서는데 그렇게 엄마품처럼 따뜻한 햇살이 내리 비친다. 오마니 반메흠! 윤우재 기자

항송(恒誦) 공덕으로 세파 건너 따뜻한 엄마 품같은 ‘오마니 반메흠’

친정 어머니가 다니러 오셨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셨는데, 친정 어머니는 방안에서 애면글면 했다.

“오마니 반메흠, 오마니 반메흠...” 관세음 보살의 본심 육자 대명왕 진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두 모녀가 안팎에서 지극하게 염송을 했다. 어머니의 간절한 정성이 닿은 것인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일체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고 아픈 몸도 씻은 듯이 나아갔다.

아주 나중에 친정 어머니는 그날 얼마나 애타게 육자진언에 매달렸는지 모른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인생 고비마다 부처님께 의지

금강심 보살은 남편이 하는 사업장 관리로 쉴 틈이 없는데도 불공과 사찰 참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회사에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 절에 나오고, 자성일, 월초불공을 철저히 지킨다.

사무실에 고객이 없을 때에는 육자진언을 암송한다. 하루 최소한 염주 21회씩 여섯 번을 정해 놓고 염송한다. 한 20회쯤 염송하는 중에 손님이 와서 중단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러다보니 어떤 날에는 진종일 염송을 해도 못 끝낼 때도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언제나 늘 변함없이 외우는 항송(恒誦)이다.

IMF를 전후해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런 항송공덕으로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시에서 상경,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예종에 들어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말이다. 대학 면접때 얘기다.

면접관들의 질문공세에 제대로 답을 못할 때마다 어떤 면접관이 나서 분위기를 돌리고 대답하기 좋은 질문을 하며 마치 신중남처럼 자기를 돕더라는 것. 시험문제도 아주 익숙한 것들이 출제되고, 습작품 제출 때에도 어려서부터 그려왔던 것들을 요구하더라. 금강심 보살도 물론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긴다. 그만큼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이프 출시



종조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 나왔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는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총지종은 이번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 등을 비롯한 오디오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 통리원 전화 02)552-1080~3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